

제약

5월 푸르름만큼 좋을 제약주

비중확대 (유지)

배기달

☎ 02-3772-1554
✉ kdbae@shinhan.com

김응현

☎ 02-3772-1568
✉ ehkimara1@shinhan.com

- ◆ 3월 의약품 내수 출하 지수(-1.3%, YoY), 수출 출하 지수(+13.3%, YoY)
- ◆ 의약품 도소매 판매액 1조 190억원(+5.8, YoY)으로 4개월 연속 증가
- ◆ 3월 의약품 수출액은 14.5% 증가해 고공 행진, 수입도 9.3% 증가
- ◆ 내수 시장 회복되고 있는 제약업 '비중확대' 유지

의약품 내수 출하 지수 102.0(-1.3%, YoY), 수출 출하 지수 139.0(+13.3%, YoY)

3월 의약품 내수 출하 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제조업 내수 출하 지수(+4.2%, YoY)의 증가를 감안하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수출 출하 지수는 139.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의약품 판매액 1조 190억원(+5.8%, YoY)으로 4개월 연속 증가

3월 의약품 도소매 판매액은 1조 19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1분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여 내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98.4를 기록했다. 의약품 서비스업 지수는 125.3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지역 확대로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 수입도 9.3% 증가

3월 의약품 수출액은 1억 4,5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3억 8,516만 달러를 기록했다. 3월에는 콜롬비아(+201.8%, YoY), 인도네시아(+121.2%, YoY)로의 수출 물량이 많았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062만 달러를 기록했다. 3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4억 1,25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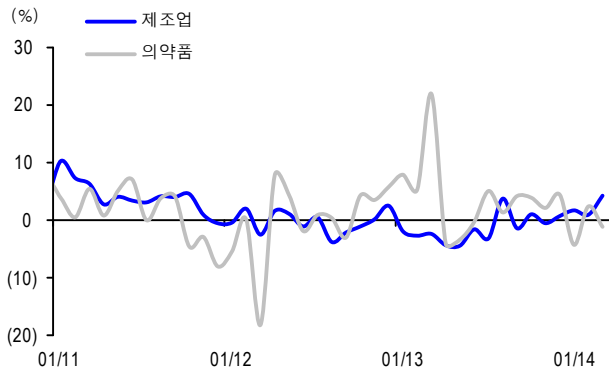
4월 의료비 지출 전망 CSI는 전월 대비 1p 내린 112를 기록했다. 생활 형편 전망 CSI는 전월과 동일한 101, 소비 지출 전망 CSI는 1p 내린 110이다.

5월 제약업 상승 기대

4월 KOSPI 의약품 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여 1.2% 하락한 시장 대비 양호하였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최근 1개월 3.1% 하락하였으며 아멕스 제약 지수는 2.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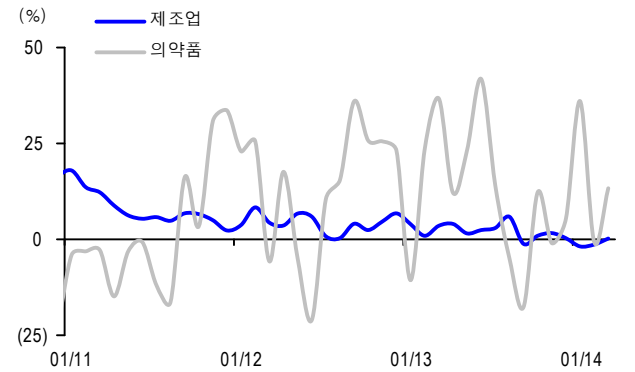
연초 대비 의약품 지수는 4.9% 상승하였는데 최근 2개월은 1, 2월에 비해 부진하였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였기 때문이다. 2분기 제약업체의 실적은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로 양호할 전망이다. 실적 개선으로 상위 업체의 주가도 상승이 기대된다. 부진했던 전문의약품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동아에스티(170900)와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근당(185750)을 선호한다.

의약품 내수 출하 지수 증감률 추이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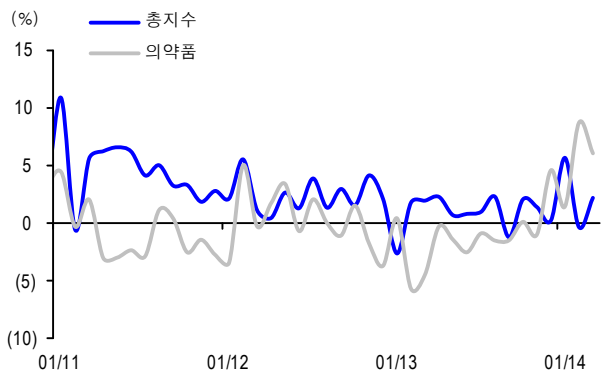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의약품 수출 출하 지수 증감률 추이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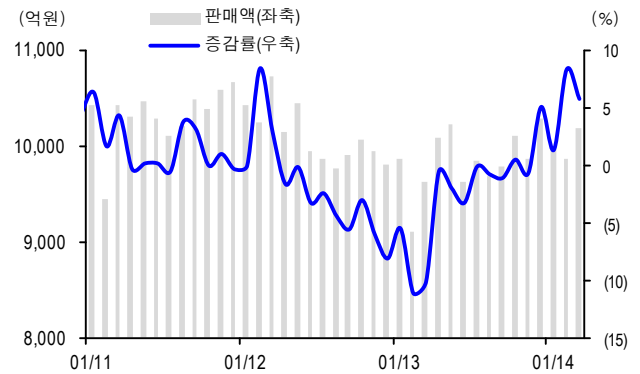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소매 판매액 지수와 의약품 지수 증감률 추이 (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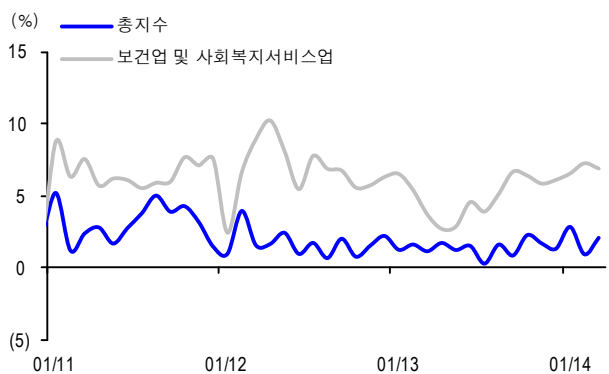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의약품 판매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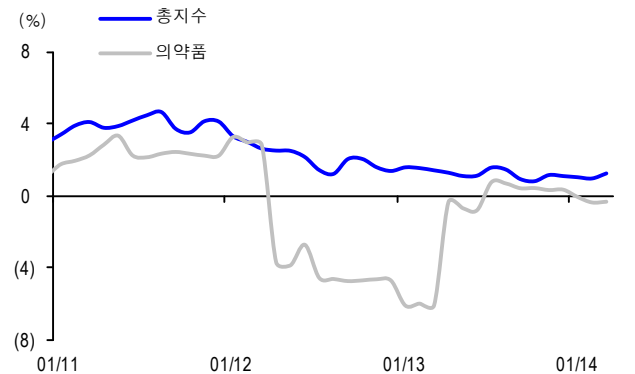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서비스업 총지수와 보건업 지수 증감률 추이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의약품 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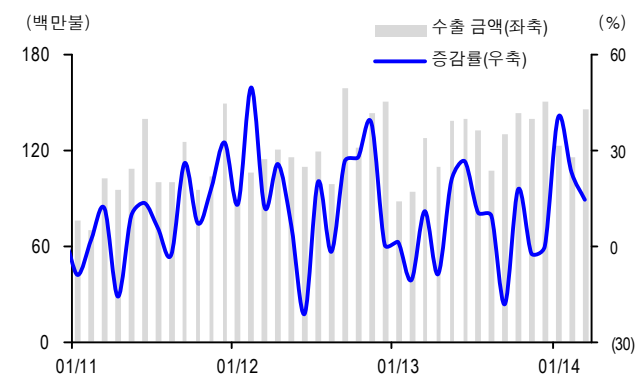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한 1억 4,586만 달러, 수입액도 9.3% 증가

3월 의약품 수출액은 1억 4,5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상위 수출국인 일본(+9.1%, YoY)과 중국(+0.7%, YoY)향 수출은 전월 부진에서 벗어났다. 수출 지역이 다양화 되고 있다. 수출 금액이 미미했던 콜롬비아는 전년 동월 대비 201.8% 증가한 821만 달러의 수출을 올렸다. 인도네시아(524만 달러, +121.2% YoY)와 브라질(795만 달러, +48.9% YoY)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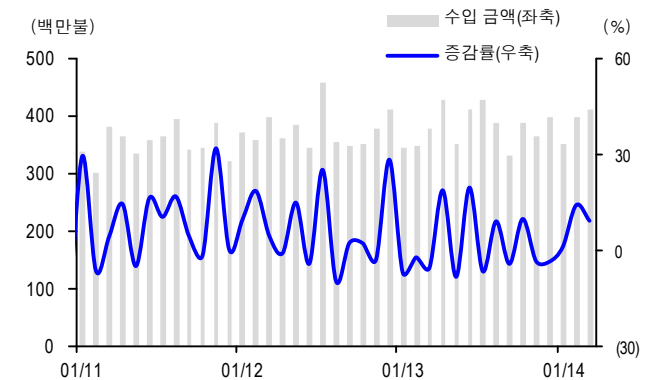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4억 1,2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국인 미국 수입액(8,912만 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다국적 제약사가 많은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액(3,177만 달러)도 50.5% 늘어났다.

의약품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신한금융투자

의약품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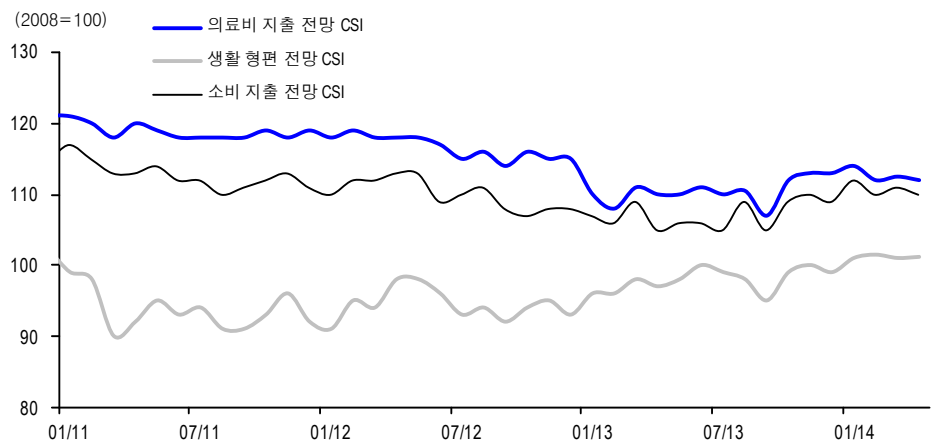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신한금융투자

의료비 지출 전망 CSI, 소비 지출 전망 CSI 소폭 감소

내수 경기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4월 의료비 지출 전망 CSI는 전월 대비 1p 내린 112를 기록했다. 생활 형편 전망 CSI는 전월과 동일한 101, 소비 지출 전망 CSI는 전월 대비 1p 내린 110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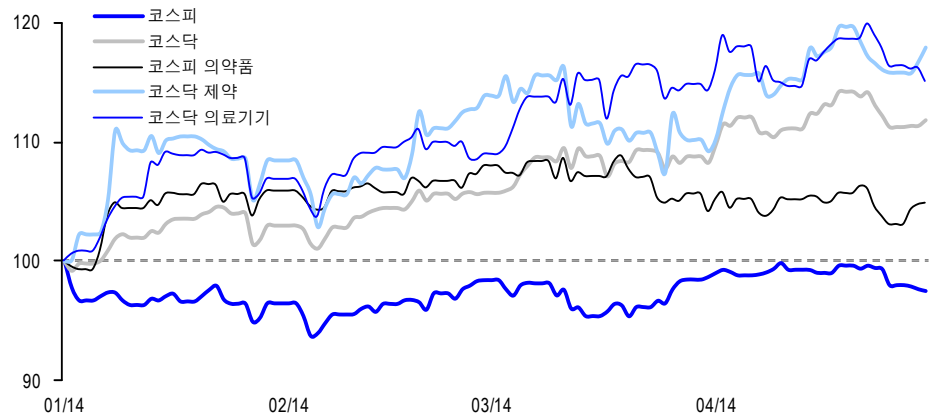
의료비 지출 전망 CSI



자료: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국내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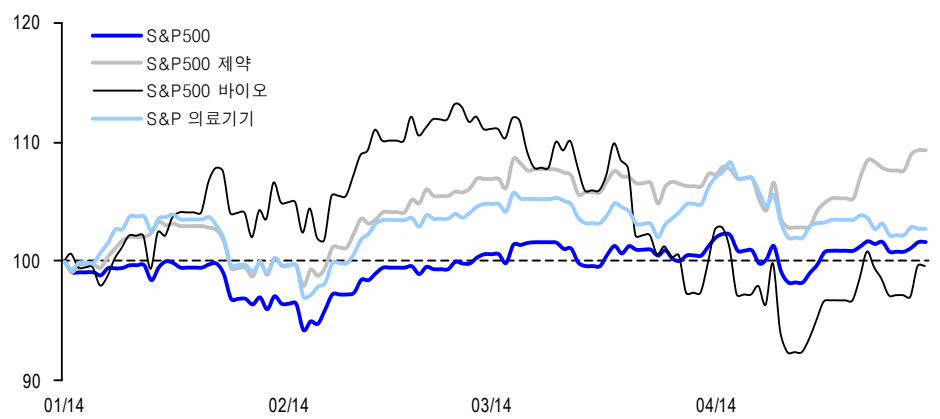
(2014.01=100)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

해외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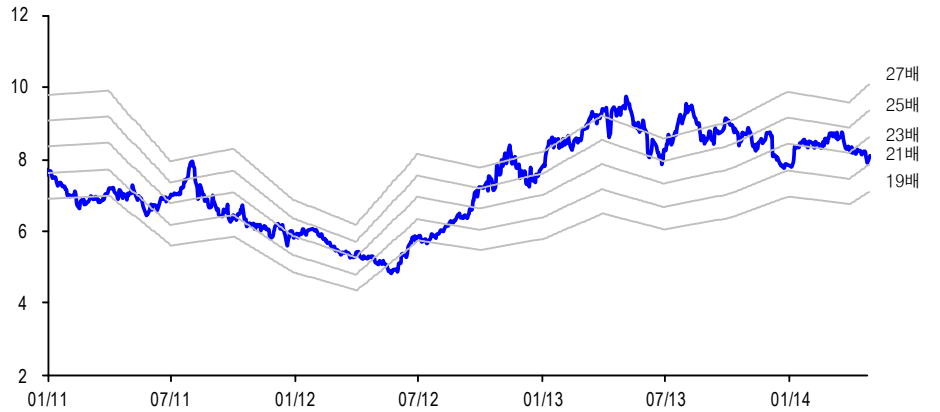
(2014.01=100)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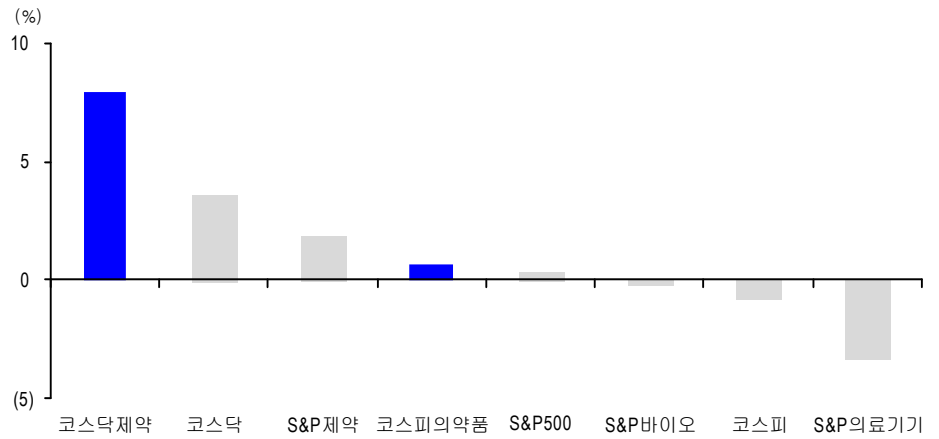
국내 제약업종 PER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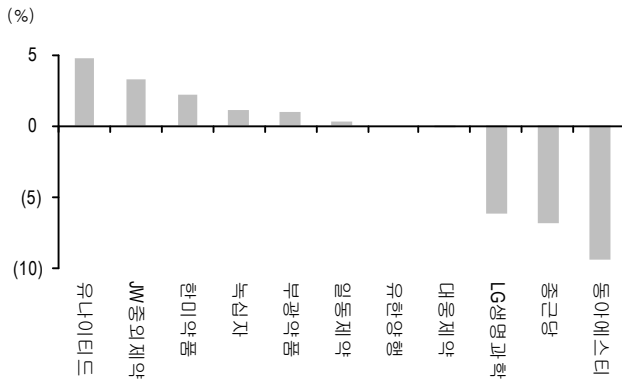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당사 커버리지 종목)

주요 지수 최근 1개월 주기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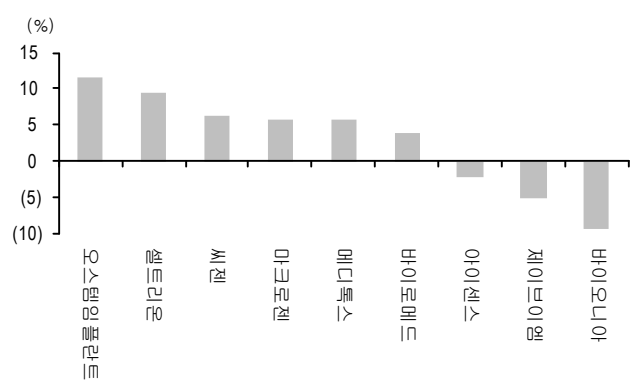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제약 주요 업체 최근 1개월 주기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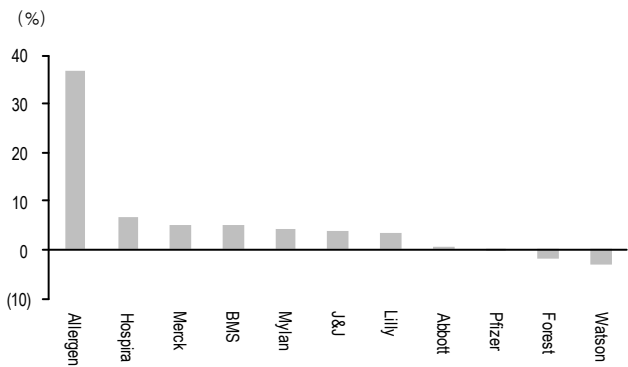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

비제약 주요 업체 최근 1개월 주기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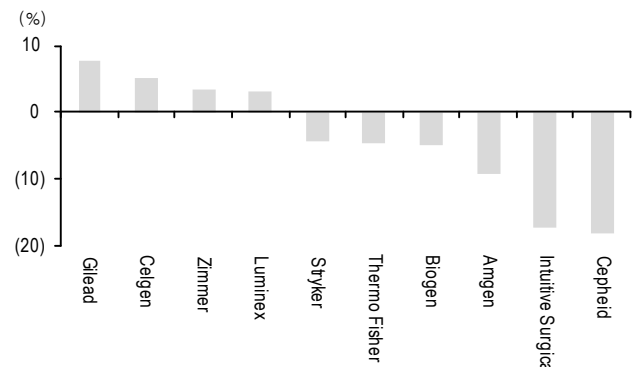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

S&P 제약 업체 최근 1개월 주기등락률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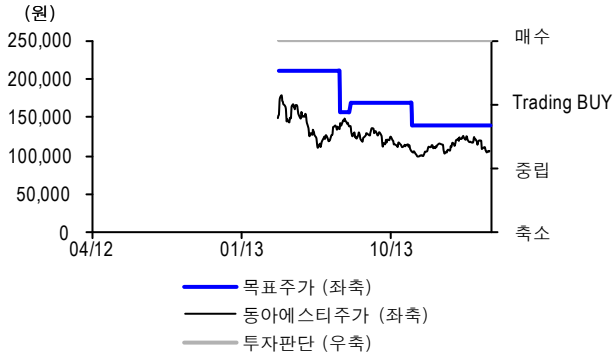
S&P 비제약 업체 최근 1개월 주기등락률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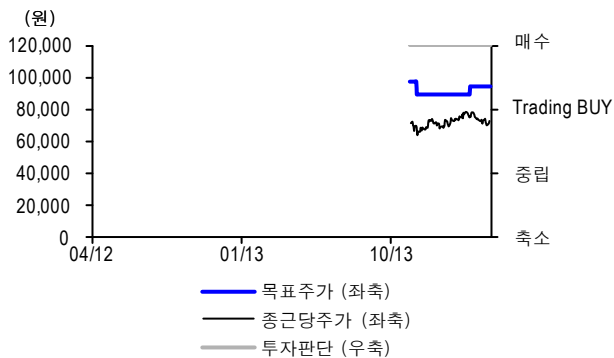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동아에스티 (17090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2013년 04월 08일	매수	210,000
2013년 07월 30일	매수	157,000
2013년 08월 18일	매수	169,000
2013년 12월 10일	매수	140,000

중근당 (18575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2013년 12월 04일	매수	98,000
2013년 12월 17일	매수	90,000
2014년 03월 27일	매수	95,000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 배기달, 김응현)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비중	비중 확대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이상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0% ~ +15%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 0%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5% 이하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